

내포지역 해안지형의 변화

이 인 화*

Transfiguration of Seashore Landform in Nae-po District

Lee, Inn-Wha*

I. 서론

간척사업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펄인 간석지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 육지화하여 농토나 기타 산업부지로 만드는 일이다.

내포지역은 「안개」가 발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척지들이 있어 왔던 곳이었다. 간석지는 하천에 의해 운반되는 모래와 점토, 그리고 실트 등과 같은 미립물질이 하천의 하구나 그 인접해안 가까이에 퇴적되어서 형성된 해안 퇴적지형²⁸⁾으로 조차가 큰 해안에 넓게 형성되는데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위로 드러난다.²⁹⁾ 간석지는 퇴적물의 공급이 풍부한 중조차와 대조차 사이의 지역에 잘 형성되며 광대하게 뻗어 있는 해안이나 만, 석호, 하구, 삼각주 그리고 삼각강과 같은 만입부 지역에 발달하기도 한다.³⁰⁾

내포지역의 간척사업은 삼교천을 중심한 농토화 간척사업과 육수가 없이 이루어지는 염전을 위한 간척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과거 간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인 한말까지의 간척사업,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간척사업은 농경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삼교천을 중심한 지역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후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도 매립에 의한 경지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가로림만 지역은 조선시기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해만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염전이 꾸준히 맥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이는 다분히 가로림만 일대의 지역 특수적인 자연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제시기 초반부터 자염을 대체하는 천일제염 방식이 보급되었는데, 천일제염에 의한 생산량은 1921년 국내 총 염생산량의 42.1%였던 것이 1939년에는 86.4%로 크게 증가하였다. 천일제염에 의한 소금 생산을 위해서는 이전의 자염식 소금 생산과는 달리 넓고 평평한 간척지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소금 생산의 공간적 거점은 조선시기의 소규모 해만들로부터 벗어나 보다 광활한 간척지가 전개된 큰 규모의 해만으로 이동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산반도 및 이원반도의 북쪽 말단부는 천일제염을 위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청정도가 높은 해수 여건, 염전 조성에 편리한 광대하고 저평한 간척지 분포,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한 미개척지 잔존 등은 천일제염의 입지를 유인한 주요 흡인

* 민속지리학박사, 면천초교 교사

28) 김주환, 2002, 《지형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p.998.

29) 권혁재, 2002, 《지형학》, 법문사, pp.343 ~ 344.

30) 김주환, 2002, 전제서, p.998.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염전 및 농경지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내포지역의 간척사업 양상을 파악해 보자 한다.

II. 본 론

1. 삼교천변의 간척사업

내포지역의 갯벌은 지면이 극히 평평하며 밀물과 썰물이 교체될 때 물이 조용히 흘러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뽕은 조류에 의해 운반되다가 수면이 잔잔한 해안에 주로 쌓이는데, 삼교천, 곡교천 등 내포지역의 크고 작은 하구에 점토질 간척지가 발달했다.

삼교천변은 옛부터 제방을 축조하여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교천 일대는 광활한 평야지역이 되었고 이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삼교천의 조석에 영향을 예산군 구만리(九萬里)·무한천의 창소리(倉所里)에까지 미쳤고 남원천의 담넘이 동네와 우강면 창리 창말은 과거 선박의 출입이 가능했다. 18C 간척된 지역과 20C 개발된 간척지 사이에는 남에서 북으로 큰 갯골이 형성되어 있고 이 갯골의 끝에는 부리포구가 있었다. 부리포는 1960년대까지 인천을 왕래하는 기선이 출입하였던 곳이다.

조선시기 방조제를 쌓는 작업은 순전히 인력에만 의존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인력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가능해 해만간척은 군사력이나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재상가(宰相家), 척리가(戚里家), 왕자가(王子家)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³¹⁾

당진군 우강면(牛江面)의 대부분은 택리지(擇里志)에 「반은 거친 땅이고 반은 기름지다」³²⁾는 기록과 같이 우강면 일대가 간척지 상태였다. 우강면 일대의 간척지 취락은 간척과 동시에 형성되었는데, 간척시기를 중심으로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5세기~16세기로 15세기에 현 우강면사무소 동쪽 간척지를 경지로 개발해 창말 마을이 형성되었고, 16세기 송산리 동쪽의 간척지를 개발해 상포·중포·하포 등의 취락을 형성하였다. 이 두 지역의 간척은 구릉지와 인접한 간척지로 초기 개발에 해당되며, 국가적인 수리사업(水利事業)이 없었던 시기이다.³³⁾ 1483년 창말에 있었던 조창(租倉)이 뽕의 퇴적으로 갯골의 기능이 약화되어 선박운항이 어려워져 공세포(貢稅浦)로 옮겨졌다. 제2기는 17세기로 이미 간척된 전면에 있는 넓은 간척지를 농경지로 간척하였고, 북쪽으로 흐르는 큰 갯골이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남원천과 연결되는데 이 갯골을 따라 홍원·박원·공포·공동원·남원포·신원·인력원 등의 크고 작은 취락이 들어서게 되었다.

제3기는 18세기로 17세기에 개발된 간척지 전면에 노변·황원·독원·피원·원내경·원대포·감찰원·가관·수문통 등의 취락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취락을 연결하면 헛바닥 모양의 개발지역이 나타난다. 17세기와 18세기는 조선수리사업의 부흥기이다. 이 시기에는 병농일여(兵農一如)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주둔병의 식량 자급책으로 간척이 활발해지고 천방사업(川防事業)이 성했다. 원대포와 원내경의 중간지점인 둔창에는 19세기 중반까지 창고가 있었다. 제3기는 우강면 일대에서 전통적 방법에 따른 간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31) 노충덕, 1998, 삼교천 하류의 지형과 농경지 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이종환, 택리지, p.122.

33) 김의원, 1982, 「한국국토개발사연구(韓國國土開發史研究)」, 《대학도서(大學圖書)》, pp.133 ~ 160.

일제시대에 있었던 우강면과 주변 간석지 및 소택지에 대한 개발은 제4기로 1924년 공유수면 매입령(公有水面埋立令)이 공포되어 간석지와 소택지(沼澤地)의 매립이 활발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인 도변승삼(渡邊勝三?)은 신평면에서 137정보를 간척하다 중지하였고, 교향산말·성원리 부근 등 이때까지 지대가 낮아 염분제거의 어려움 때문에 간척되지 않았던 지역을 일해흥업(日海興業)주식회사를 중심한 일본인들이 농경지로 간척하였다. 내경리 동쪽의 일부도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방 후 현재까지는 제5기로 해방 이후는 이미 개발된 간척지의 동쪽에 새로 형성된 간석지에 대한 개발이 있었다. 건설부, 종교단체, 혹은 마을공동체에 의해 간척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는 지방유지들이 주도하여 만든 소규모의 농장도 있다.

당진군 우강면 옛 간석지 위에 생겨난 자연부락의 지명을 살펴보면, 성씨(姓氏)와 원(堰)자를 붙인 지명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누군가가 갯벌에 독을 막아 간척에 성공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성씨를 따거나 독을 막은 공동체나 단체 이름을 따서 지명을 붙였기 때문이다.

즉, 우강면에는 송산리·창리·세류리 지역 등 삼교천 연변지역 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과거 간석지 지역으로 조선시대 행정리가 존속하던 19세기말까지 독원(獨元), 피원(皮元), 내경(內鯨), 상원(上元), 협원(峽元), 성원(成元), 노변(蘆邊), 이원(李元), 황원(黃元), 남원(南元), 북원리(北元), 홍원(洪元), 박원(朴元), 정계원(淨界元), 점원(黠元) 등의 지명에서 간척되었던 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 태안반도 천수만지역의 간척사업

삼교천변의 간척사업과는 달리 가로림만 일대에 있어서는 중소규모의 해택 및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여 언젠 개간이 활발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선말기까지 언답개간을 통한 해만개척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일대의 자연지리적 특성 및 인간 거주지로서의 생태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간석지가 언전으로 개간되기 위해서는 일단 방조제 축조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입구가 작은 소규모 해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천수나 저수의 담수관개를 통해 적어도 5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간석지의 염분 제거작업이 뒤따라야 하나 장기간의 담수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교천 등 큰 하천이 없던 천수만, 가로림만 지역 등은 간석지와 소규모 해만이 널리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가늘고 긴 반도형태가 늘어져 있어 분수계 안쪽의 집수 면적이 좁고, 하천이 산발적으로 분포할 뿐 지속적 담수공급을 위한 영구하천은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7~9m로 심하기 때문에 방조제 구축 및 그 이후 언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산만의 삼교천변, 역천 주변, 보령의 대천변을 제외한 지역에서 간척사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포지역의 서산태안 지방은 조선 태종대까지 왕의 강무처(講武處)로 설정되어 삼림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취해졌고, 인조대에는 황해도도의 연안, 해주와 함께 전란시 강도(江都)방어를 위한 중간 방어선으로 설정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고려시기로부터 조선조까지 추진된 굴포 개착이나 목재 생산을 위한 봉산(封山)지정과 숙종대의 안면도 착륙사업 등 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 통제가 많았다. 특히,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여지도서」나 각종

읍지에 관영(官營) 목장이 설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산과 태안 지방의 여러 곳에는 조선초기부터 중앙 정부가 수시로 관여하면서 일반 백성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하였는데, 가령 「왕조실록」의 기록들에는 태안지방에 목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정지 내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고 쓰고 있다.³⁴⁾ 그리하여, 조선 세종대까지도 태안지방은 백성이 적고 전지(田地)가 넓게 비어 있었다.³⁵⁾ 따라서 강무처 설정, 수도 방어를 위한 방어선 지정, 국가적 토목공사, 목재 생산을 위한 봉산 및 목장의 설치라는 이 지역의 역사적 이력 또한 가로림만 일대를 거시적 틀에서 관의 공간화 함으로써 민에 의한 해만 개척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조선시기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 과정은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 전국적인 경향과 달리 「경지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본격적인 개간 시기가 「일제시기」로서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관련이 깊다. 소규모 해만과 간석지가 널리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담수 확보의 어려움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을 「해만 개척 = 농경지화」의 진로가 아닌 「해만 개척 = 염전화」로 유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만, 이 경우 염전화란 일제시기 이전까지 천일제염에 의한 염전이 아닌 자염을 위한 밧 시설 및 밧밭³⁶⁾의 분포를 의미한다.

한편 가로림만 일대는 한반도 서해안 중에서

도 황해를 향해 돌출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간석지의 토양 입자 구성에서 아산만 일대의 그것에 비해 사질토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토질 조건 역시 조선시기의 보편적 소금 생산 방법이었던 자염방식에서 열효율 및 노동 효율성 향상과 직결되었으므로,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을 염전화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 및 저수지 축조를 통해 충분한 담수를 공급받기 전까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에 있어서 염전화는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 전략이었음을 뜻한다. 조선중기 태안지방은 소금을 굽는 염분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사적으로 불법적인 소금 생산에 임하는 백성 또한 상당수에 달했다. 이와 같이 조선말기까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은 일부 소규모의 것을 제외하면 과거의 해안선을 대체로 유지한 채 국가나 개인에 의한 소금 생산지로서의 역할이 주된 기능이였다.

조선시기 전체에 걸쳐 풍부한 담수 공급을 배경으로 해만 개척의 방향이 둔전이나 궁방전 등 경지화를 향해 진행될 수 있었던 내포 지역 아산만 일대의 상황과 대조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조선시기 가로림만 일대에 중앙 정부의 재상이나 척리가, 왕자가 등의 세력이 거의 미치지 못한 이유도 경지화에 불리한 생태적 조건이 이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제시기 가로림만 연안의 해만 개척이 갖는 특징을 추출해보면, 첫째 외지인(특히 경기도 거주자)에 의해 해만 개척이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10정보(약 30,000평) 이상 대규모 매립은 일

34) 《세종실록》 27년 10월 9일, 《세조실록》 3년 10월 2일 임진조.

35) 《세종실록》 14년 8월 1일 정해조 ; 27년 5월 28일.

36) 밧이란 소금 생산을 위한 가마와 그 보호 시설을 말하며, 개펄 흙의 염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쟁기와 쉰래질을 반복하는 일정 면적의 간석지를 밧밭이라 한다.

본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 셋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개척에 참여했다는 점, 넷째 해만개척이 염전화로부터 전환하여 경지화로의 방향 즉 담(畓)으로의 개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립 사업 진행 도중에 투입 자본을 회수하지 못한 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 간척사업의 초대형화

1970년대 말부터는 간척사업이 초대형화 되어 1979년대 말 삼교천방조제, 1988년 대호방조제, 1991년 석문방조제, 1984년 서산A·B방조제, 1995년 모산만 하구의 홍보방조제, 보령방조제가 완공되어 용수문제를 간척지 안에서 거대한 담수호(淡水湖)를 조성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는 막강한 중장비의 동원으로 가능해졌다. 그 외 크고 작은 간척사업이 내포지역의 해안선을 짧게 만들었고 그런 속에서 해안선을 따라 있던 포구와 그 포구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각종 민속행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³⁷⁾ 서산 A지구 방조제는 홍성군 서부면 궁리와 서산시 부석면 창리사이에 1984년 2월에 완공된 것으로 그 길이는 6,476m, 저수지의 총저수량은 1억 4,493만 톤, 담수면적은 3,220ha이다. 이보다 앞서 1982년 10월에 완공된 서산 B지구방조제는 서산시 부석면 창리와 태안군 안면읍 남면 당암리 사이를 막은 것으로 그 길이는 1,228m, 저수지의 총저수량은 9,367만 톤, 담수면적은 1,702ha이다. 대호방조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에서 도비도까지의 3,253m구간과 도비도에서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까지의 4,554m구간에 방조제를 1984

년 11월에 완공한 것으로 1억 2,200만 톤의 저수량을 갖는다. 이 저수지의 건설로 3,700ha의 농경지를 확장하고 2,860ha에 달하는 농지의 수리관개를 개선했으며 1,140ha에 달하는 농지를 경지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³⁸⁾

III. 결 론

간척사업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별인 간척지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내포지역에서는 삼교천을 중심으로 15세기부터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광복이후 1979년 삼교천 방조제가 조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 농경지화 하였고 가로림만 지역 등 큰 천(川)이 없어 육수의 공급이 적었던 다른 안개지역은 대부분 염전을 위한 간척사업이 주를 이루어졌다. 따라서 염분을 빼낼 수 있는 육수의 공급이 해만간척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79년 삼교천 방조제를 필두로 1988년 대호방조제, 1991년 석문방조제, 1984년 서산A·B 방조제, 1995년 모산만 하구의 홍보방조제, 보령방조제가 완공되어 간척사업이 초대형화 하였고 용수문제도 간척지 안에 거대한 담수호(淡水湖)를 조성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용지의 부지도 농경지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현재 당진군 지역의 한진 부곡단지, 현대철강의 부지, 당진화력, 대산공단 등 수많은 공단들이 간척지에 입주하고 있다. 이는 막강한 중장비의 동원으로 가능해졌다.

文 獻

《세조실록》 3년 10월 2일 임진조.

37) 전중환, 2003, 내포지역 해만간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일제시기 전후의 가로림만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근현대 내포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엘리트의 동향,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38 ~ 42.

38) 이문종, 1998, 《서산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서산시, p.72.

《세종실록》 14년 8월 1일 정해조.

《세종실록》 27년 10월 9일조.

《세종실록》 27년 5월 28일.

권혁재, 2002, 《지형학》, 범문사.

김의원, 1982, 《한국국토개발사연구(韓國國土開發史研究)》, 대학도서.

김주환, 2002, 《지형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노충덕, 1998, 삼교천 하류의 지형과 농경지 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문종, 1998,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서산시.

이중환, 택리지.

전종한, 2003, 내포지역 해만간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일제시기 전후의 가로림만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근현대 내포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엘리트의 동향,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